

‘광주의 하루’ 35명 출생 19명 사망

2015년 광주시정 통계 24쌍 결혼, 8쌍 갈라선

지난해 광주에선 하루 평균 3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하루 24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8쌍이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9일 공개한 2015년 ‘광주의 하루’로 나타난 시정 통계다. 전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출생은 하루 평균 1명이 늘었고 사망자 수는 동일했다. 결혼은 2쌍이 늘어난 반면 이혼 건수는 전년과 같았다.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9만5000㎡, 전력량과 도시가스 사용량은 2만2668MW/h, 163만9000㎡였다. 전년에 비해 물은 4000㎡, 전력은 210MWh, 도시가스는 6만7000㎡ 사용량이 늘었다. 반면, 석유류 소

비량은 2559㎏로 집계돼 전년(2633㎏)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하루 평균 47대로, 전년(58대)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전년(11건)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하루에 1249명의 주민이 전·출입 등으로 인구 이동이 있었으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46만8000명이었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전년 대비 1만3000명이 늘었다. 화재는 하루 평균 3건이 발생했다.

지방세로 33억4400만원을 거렸으며, 하루에 처리한 각종 민원서류 건수는 3227건에 달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2012년 기준)은 1328t으로 5t트럭 600여대 분량이다. 광주시 총 인구는 147만2199명으로 남자가 72만9662명, 여자가 74만2537명이



다. 세대수는 58만427세대다. 구별로 북구가 44만6316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40만753명, 서구 30만5028명, 남구 22만1318명, 동구 9만8784명이다. 동구 인구는 북구 인구의 4분 1에 불과하고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쌀 애용해 주세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 강남경 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귀객들을 대상으로 전남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올 동계훈련 선수 5만9000명 유치한다

40개 종목 2400여팀... 지역경제 유발 효과 570억

전남도가 오는 3월까지 40개 종목, 2400여 팀, 5만90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하기로 했다. 온화한 기후, 저렴한 물가 등으로 전남도가 국내·외 선수단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겨울철에도 일사량이 많고 따뜻한 최적의 기후조건, 친환경 농수산물로 만든 맛갈스러운

남도음식, 국제규격에 적합한 체육시설 인프라 등 장점을 앞세워 국내·외 전지훈련팀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오는 3월까지 전남도의 목표대로 5만90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하고 있다.

10일 현재 목표는 중국 고등부 축구팀 35명과 일본 여자축구팀 25명을 비롯한

국내의 축구팀들을 유치했고, 여수는 국가대표 복싱팀 37명, 태권도 일본 전선팀을 비롯한 농구, 야구, 탁구, 롤러, 유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들이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은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해 전국 각지에서 49팀 2000여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으며, 정구 22팀 500여명을 비롯한 검도, 태권도, 테니스 선수들이 맘을 즐기고 있다.

광양에는 국가대표 상비군과 한국체육

대학을 비롯한 육상 38팀과 축구, 태권도, 탁구, 씨름 등 160여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찾았다.

강진은 중국 신강 18세 축구대표팀 35명을 비롯한 국내·외 18팀 720명의 축구팀을 대거 유치했다. 국가대표 여자력비토도 방문해 훈련을 마쳤다. 한국전력 럭비팀과 협매 2군 축구팀, 전국 각지의 사이클 선수들이 설 연휴 이후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남에도 레슬링, 육상, 축구, 배구, 펜싱, 검도 등 200여팀 4000여명의 선수단이 방문해 스토브리그 개최 및 전지훈련 열기를 더해 전남 최고의 전지훈련지로서 입지를 굳혔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무등경기장 야구장 활용방안 검토 착수

이달중 테스크포스 구성

옛 보훈병원 주변 주차장 조성

광주시가 1980~1990년대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요람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 검토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무등야구장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광주시는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수립을 맡기고 상반기 중 시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듣는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테스크포스는 공간 활용도를 고려해 건물을 허물 것인지, 야구장의 역사성을 살리도록 개·보수를 할지 등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광주 북구 일동에 자리 잡은 무등야구장은 1965년 세워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부터 KIA 타이거즈까지 줄곧

호랑이들의 홈구장으로 쓰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과 함께 낡은 시설과 잦은 부상발생으로 선수들에게 기피대상이 됐다.

바로 옆에 챔피언스 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 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한편 시는 새 야구장인 챔피언스필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보훈병원 주변 715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400대 수용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비와 시비 절반씩 모두 152억원의 들여 주차 건물을 세울 예정이다.

다목적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 하반기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방침이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1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챔피언스필드 주차 면적에 더해 인근 주차난을 일부 덜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일 광주시장 찾습니다”

시민시장 참여자 25일까지 모집

“1일 광주시장을 찾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일 시민시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시장 운영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은 시 공식 행사·회의 참석,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시장 활동 현장을 시장과 동행하며 하루 동안 경험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전자우편 jjonje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안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다둥이엄마, 사회적기업 창업 대학생, 장애인활동가 등 총 6명의 시민시장이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발돼 활동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농촌에 젊음 불어넣기 시도

농산업 창업 지원, 농대·농고생 인턴제사업 추진

전남도는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 촉진 및 창업 초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수 청년인력 장업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과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시·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대·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 동기 부여를

제공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업이다. 월 120만원의 연수수당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이는 전남도가 최조다. 39세 이하 농대·농고 휴학생 또는 5년 이내의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며, 거주지 시·군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타 도(道)의 경우 국비 8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남도는 지방비를 보태 120만 원을 지원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이들이 창업 초기 소득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창업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